

시공(時空)을 초월해 소통을 꿈꾸는 <기억의 단편들>-김승영의 작업세계

작가 김승영은 <소통(communication)>과 <기억(memory)>이라는 테마를 인스톨레이션이나 사이트 스페시픽작업(site specific work)으로 연출해왔다.

숲에서 거두어 온 무수한 낙엽들로 전시장을 메우고 그 한가운데에 일정한 속도로 떨어지는 물방울이 연출하는 전시공간. 작가개인의 삶을 공유하거나 스쳐간 인명들이 자막으로 흘러가는 영상.....

그의 작품은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찰나적 만남과 기다림, 망각과 기억 속에 위치한 살아있는 존재들의 의미를 생생하게 연출한다. 과거와 현재, 물질과 영혼, 인간과 자연 사이의 고정 관념화 된 경계를 허물고 時・空間의 접점과 미끄러짐 사이에서 눈과 귀와 촉각과 후각의 감응기재가 온전히 작동하여 세계와 만나게 되는 희열을 관객에게 제공한다. 그의 작품에 초대받은 관객은 물질과 물질의 찰라적 만남과 기다림, 미끄러짐 사이의 여백과 여운에서 존재들의 내밀하고 근원적 가치들과 대화하게 된다. 그것은 단순히 어떻게 세계를 바라볼 것인가를 제시하는 미술의 지표를 넘어 어떻게 하나의 사물이 일상의 문맥에서 벗어나 art의 차원으로 진입하는 지, 또 그 art가 우리의 삶에 있어 어떠한 기능과 가치로 작동하는지를 자명하게 드러내 준다.

일상의 상품이나 사물을 미술담론(discourse)의 장(field)에 들여와 본래의 문맥을 비틀거나 잘라내어, 현대미술의 계보를 형성해 온 것은 다다이스트와 쉬르리얼리스트, 팝 아티스트들 사이에서 흔하게 채용되어 온 기법이다. 그들의 작업에 관류되고 있는 수법은 일상의 관용화 된 산물들-당대의 신지식과 신기술에 의한 산업사회의 레디메이드-을 담론의 미디어로 차용하여 조크나 냉소적 패러디를 부가하는 지극히 인위적인 충격효과를 발신하는데 목표를 맞추고 있다. 그것은 서구의 이성중심적 가치관에 기초한 미술담론의 장에서 형성된 진보주의 미술사관의 성과들이었다.

그러나 김승영의 일상으로부터의 변용과 새로운 차원의 연출효과는 그것들과 부분적으로는 세계를 공유하면서도 근원적으로는 지평을 달리한다.

그의 작업은 소비 산업자본주의 산물을 차용하더라도 그 산업사회의 일상적 표피나 관용구만을 빌려오는 것이 아니다. 그의 작업에서 차용된 일상은 도시생활에서의 일상을 빌려오기도 하지만, 일상에서 일탈하고자 찾아 간 고즈넉한 산사에서나 문득 발견하게 되는 생명의 비의(秘意)와 문화적 자취들을 불러들인다. 바위틈새에서 자라나고 있는 이름 모를 초목들이나 풀벌레들의 존재에서 발견하는 신선한 생명의 존엄성과 존재의 불가사의, 유적들의 잔허(殘墟)가 환기 시켜주는 인간 삶의 자취나 문화적 기억들의 무게와 의미들을 소생시켜 주는 것이다. 풀잎에 맺힌 이슬의 명징함과 처마 끝 풍경을 스치는 바람소리를 들려준다. 거기에는 도시의 바쁜 일상과 기계소음 속에 잊혀지고 소모되고 희미해져 가는 우리의 지각기재들 - 우리의 눈과, 귀와 촉각과 후각- 을 다시 건강하게 소생시켜주는 마술이 펼쳐지고 있다. 그것은 시각적 진실이나 미술이란 존재의 물질적 규명에만 몰두하던 근대미술담론이나, 온전한 감각기재의 균형을 되살려줄 것으로 기대했던 마샬·맥루언 식의 전자기술시대에 안이하게 편승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김승영의 작품세계에는 문명과 자연, 이성과 감성, 이지와 지각세계가 분별되기 이전의 근원적인 존재의 이법과 지혜에 눈뜨게 하는 현자의 메타포가 빛나고 있다.

김영순(미술평론)



...김승영은 삶 속에서 만났던 사람이 좋았던 경험이건 나빴던 경험이건 간에 시간의 흐름 속에 객관적으로 남겨지기를 바란다. 횡적으로 놓인 캔버스에 묻혀진 물감의 흔적은 다른 캔버스들과 함께 기억의 흔적으로 시간의 굴을 팬다. 회화라는 도구를 사용한 김승영의 평면-설치는 회화적 기호가 아닌 현실의 기호로 보여진다. '기억의 방'에서는 눅혀진 캔버스의 덩어리들이 공간 안에서 서로 밀고 당기고 있다. 하나의 캔버스를 점으로 본다면 그것이 쌓여져 선과 면을 이루고 그 면들은 캔버스의 의도된 물감 흔적들로 모여 하나의 덩어리를 형성하며 가장 단순하면서도 긴장감 넘치는 구도로 세상의 인간 관계를 묘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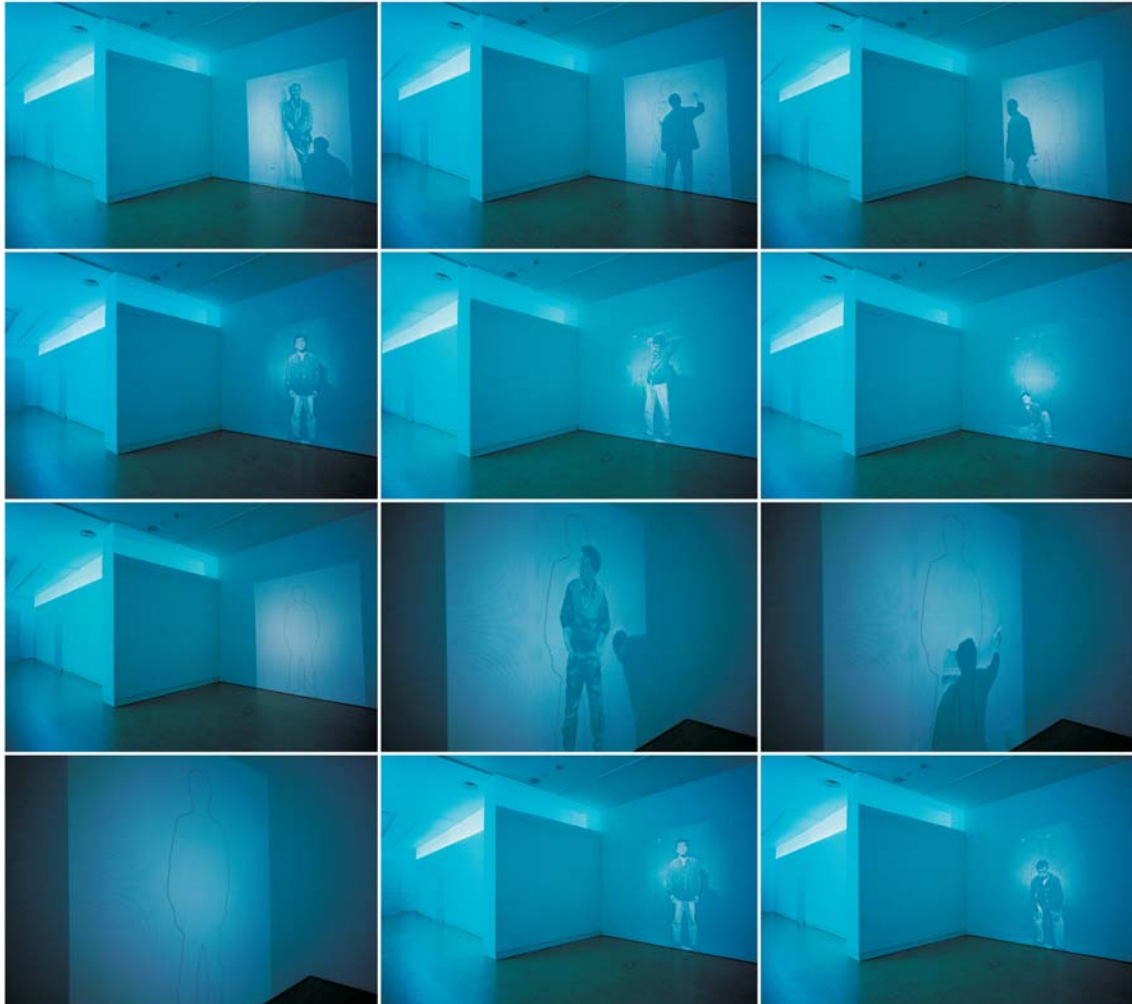
김미진(미술비평)



Memory room
Canvases, Halogen lamp, Nylon cloth
Variable Size
1999



Memory room
Canvases, Halogen lamp, Nylon cloth
Variable Size
1999



Room of Memory, Single-channel video, 6 minute, 1999

배경의 실루엣으로부터 출발한 한 남자가 경직된 선으로부터 벗어나 점점 허물러져 내려앉고, 뒤이어 작가와 부분적으로 관계를 가진 듯한 모델이 실루엣으로부터 약간 벗어나 등장하고, 작가가 그 위를 흰색으로 덮어씌운다. 또다시 앞에 등장한 남자가 반복적인 행동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하고 작가는 똑같은 행위로 흰색을 덮는다. 아니 지워나간다. 김승영은 실루엣이라는 정형화된 현실에서 실망하고 절망하는 남자 자신이다. 그런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인간관계는 맺어진다.







존재의 영속성과 순환, 그리고 소통에 대한 다양한 작업을 이어오고 있는 영상 설치작가 김승영의 이 자화상은 벽에 붙여놓았던 요셉 보이스의 사진이 아침마다 계속해서 떨어져 매일 다시 붙이기를 반복했던 경험에서 시작되었다. 영상 속에는 작가의 사진이 벽에 붙어 있고, 그것이 떨어질 때마다 작가가 나타나 다시 붙이고 사라지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연출된다. 이것은 자신에 대한 어떠한 노력의 수행, 그리고 그것의 실패와 새로운 시작의 반복적인 순환, 나아가 우리의 삶의 여정을 상징한다고도 보여지는데, 이러한 순환성과 화면에 흐르는 명상적인 분위기는 작가 작업 전반에서 보여지는 특유의 감성과 철학이기도 하다.

최정희 (서울시립미술관 큐레이터)

자화상
단 채널 비디오, 16' 01"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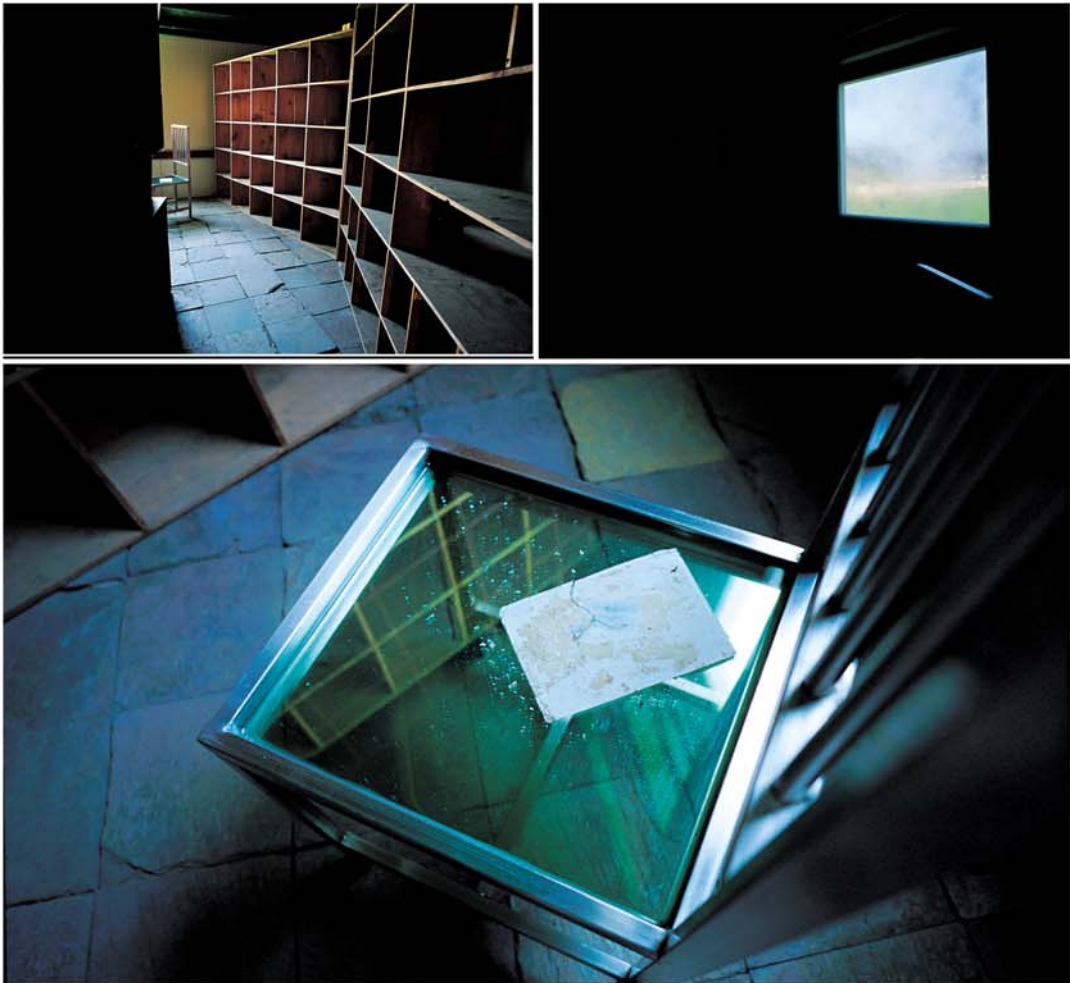
Installation



작품 반영은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고여 있는 물 위에 떨어지는 순간에 단 한 번의 소리를 만들어 내고는 사라져버린다. 다음 순간 보잘 것 없이 사라져버린 물방울의 존재를 천장 위의 그림자가 되살려 주고 있는데, 천장 위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물결은 아무 갈등 없이 편입되었다고 생각했던 물방울이 사실상 겪고 있는 갈등의 모습을 나타낸다.



Reflection
물, 낙엽, 홍화, spot light, 스테인레스스틸, 노란색 아크릴
가변크기
1997~2006



2001년도 공장 창고에서 전시되었던 <기억의 방>은 어머니를 모티브로 했다. 이 작품은 유리로 만들어진 의자에 물을 담아 물속에 오래 전에 찍은 가족사진을 넣었다. 물 속에 넣은 흑백 가족사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미지가 점점 사라져 간다. 사진은 일종의 시간을 담는 그릇이고, 이시간이 없어진다는 것은 사건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사진은 한번 찍혀 집과 동시에 박제되어서 그 이미지는 내부적으로 정지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시간이 더 이상 흐르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물속의 사진이 생명력을 가진 것처럼 시간에 의해서 점점 사라지면서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복원과 망각에의 충돌을 보여 준다. 여기에 사용된 물은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물과 연관된다. 그리고 동시에 소멸의 의미를 함께 갖는다. 이러한 물의 성격은 시간을 떠오르게 한다. 인간이기에 한 쪽 눈은 시간을 바라보고, 다른 쪽 눈은 영원을 향해 돌릴 수밖에 없는, 삶속에 스며 있는 시간에 대한 사색-일종의 두려움, 불안, 희망, 욕망, 불멸-을 하게 한다.



기억의 방
물, 흑백사진, 책장, 스테인레스스틸, 유리, 돌판
가변크기
2001



.....이 작업에서 상징들 사이의 일체감을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닌 침묵이다. 반복적인 물소리와 음향은 눈 앞의 고요한 풍경에 더 주의를 기울이게 만들어 관람자의 마음을 평정한 침묵으로 이끈다. 침묵이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함께 포용하는 지점이며, 고요함 가운데 움직이는 생기를 붙잡을 수 있는 지점이다.

<기억의 방>은 이와 같은 침묵 속에서 물에 비친 고요한 자신, 사회적으로 형성된 자아가 아닌 보다 근원적인 자신을 느끼도록 이끌고 있다.....

이은주(독립큐레이터)

<소통과 흔적에 대하여>에서 발췌



지름 9M 가량의 넓다면 넓은 수면이 있다. 5M 높이의 천장에 매달린 9개의 유리분액 깔때기에서 물방울이 바닥의 수면 위로 떨어지면서 물이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조용한 파문이 번진다. 수면은 송판으로 만들어진 격자틀로 에워 싸여져 있다. 이 나무 격자틀은 전통문의 문살들처럼 작은 문들을 연상시킨다. 건물 한쪽 면에는 투명한 이름벽돌(5,18광주항쟁 때 희생한 사망자 명단)로 만들어져있는 노란색 투명한 벽이 만들어져 있다. 그 벽으로 가득 들어오는 가을햇빛은 이 텅 빈 공간에 고요함을 더해준다. 이름벽돌이 비춰지는 수면에 떨어지는 물방울과 반사된 빛이 만나 천장에서는 동심원 무늬들이 서로를 간섭하면서 사방팔방으로 번져나간다. 책장 주위에는 스피커가 5개가 설치되어 있어서 관객들은 책장 주위를 돌면서 잔잔한 피아노 소리, 문 여닫는 소리 등을 포함한 일상의 소리들을 들을 수 있다.





Memory Room
Mixed Media, Variable Size
2003~2004





이번 개인전에서 김승영은 오브제와 물, 그리고 벽돌 위에 붙인 수많은 이름들로 이루어진 설치 작품 '흔적' (2008)과 싱글채널 영상작품 '기억' (2008)을 출품하였다. '흔적'은 공간화랑 전체 면적에 걸쳐 배치된 장소특정적 설치작품이다. 전시장의 천정에 매달린 오브제는 마이미스트들이 언어를 배제하고 종이로 행위로 소통을 시도하며 연출을 구상하던 자리에 김승영이 우연히 참여하면서 아이디어를 얻은 작품이다. 그는 몇 명의 사람을 모아 넓은 종이를 매개로 한 자유로운 행위로 서로에게 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소설 '개미'에서 자신과 상대방의 더듬이를 맞대고 비비는 행위로 서로의 기억을 교환하는 개미들의 소통을 연상하게 하는 이 행위의 결과로 김승영은 소통의 흔적이 남은 종이들을 얻게 된다. 그것들을 이어 붙여 커다란 오브제 형태로 만들어서 전시장에 매달아 놓음으로써, 그는 우연성에 기초한 소통의 흔적을 시각적으로 재현해 놓았다.

오브제 아래에 언뜻 심연(深淵)처럼 자리 잡은 물은 오브제와 그 배경을 은은하게 반영하고 있다. 위쪽에 있는 유리창을 통하여 들어오는 햇빛의 각도가 변하면서 매 시간 다른 분위기의 공간을 반영하는 물은 명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냄과 동시에 공간의 차원을 확장시킨다. 동시에 관객으로 하여금 작품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소통을 하게 함으로써 진지한 사고의 모멘텀을 가질 수 있게 한다. 그 위로 떨어지는 물방울은 생각보다 큰 소리를 내며 물 위에 비친 영상에 잔잔한 파문(波紋)을 만들어낸다.

전시장의 입구부터 내부 깊은 곳까지, 수많은 이름들이 박혀 있다. 작가가 그 동안 살아오면서 기억 속에 들어온 사람들의 이름을 공간화랑의 내부에 있는 각각의 벽돌 위에 투명한 글씨로 붙여 놓은 것들이다. 긴 시간의 흔적이 드러나는 벽돌 위의 이름들은 어떤 것은 선명하게, 어떤 것은 오랜 시간 벽돌과 함께 닳고 지워진 듯 존재하는데, 마치 여러 차원들의 시간이 남긴 흔적들이 중첩되어 있는 것 같다. 차원의 통로를 부유하는 기억의 편린들을 은은하게 재현해 놓은 이 이름들을 김승영의 기억을 통해 만들어진 하나의 소우주(小宇宙)로 읽을 수 있다면, 이 소우주의 흔적 속에 존재하게 된 관객은 그 흔적들로부터 궤도가 다른 자신만의 소우주를 그릴 수 있을 것 같다. 각자의 소우주들이 서로 얹히고 겹쳐져 서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은 '나'라는 존재의 한 순간이 우주의 삼라만상과 맞닿아 있다는 일념삼천(一念三千)의 가르침을 상기하게 한다.

고원석 (공간화랑 큐레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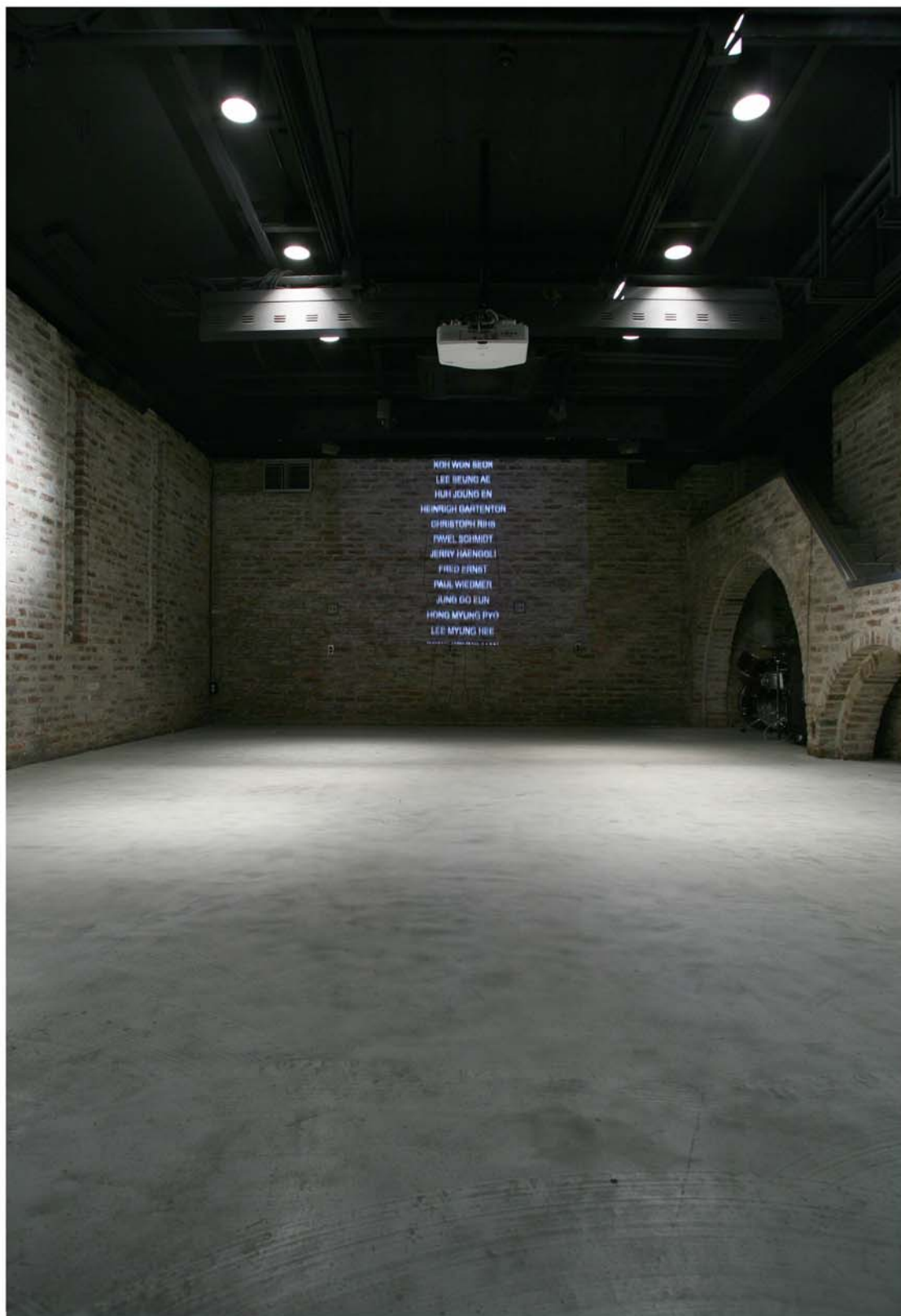
Traces
Water, Paper, Lacquer, Variable Size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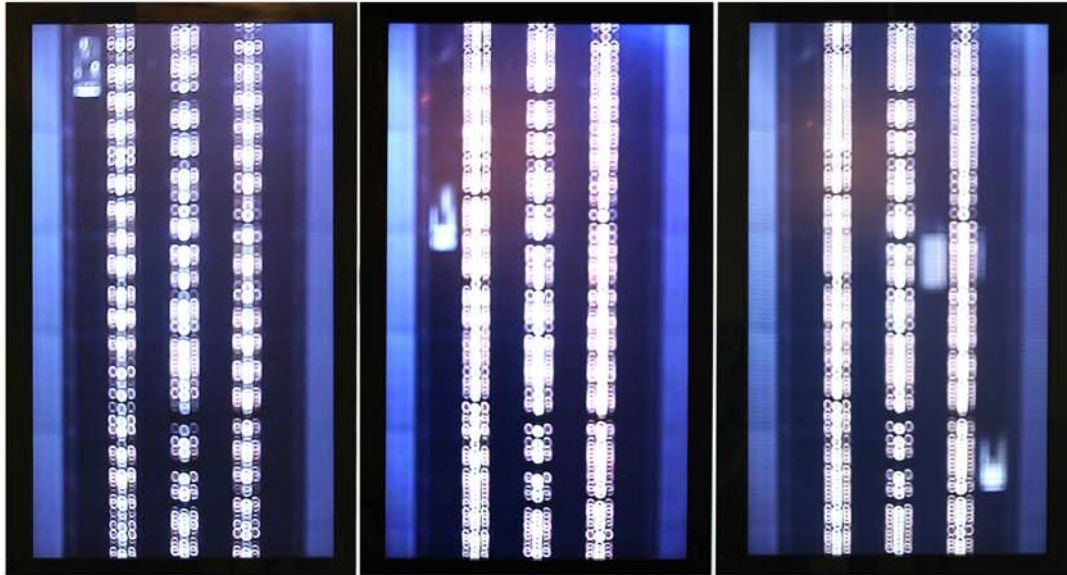


소극장 공간사랑에는 영상작품 '기억' (2008)이 상영되고 있다. 화면은 깔끔한 스크린이 아니라 투박한 벽돌 면 위에 투사되는데, 자신의 윤곽이 그림자처럼 드리운 벽면 위에 그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이름들이 장식적인 요소 없이 그저 지나간다. 마치 영화가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감도는 적막한 분위기도 있지만, 작곡가 오윤석이 작업한 서정적인 음악은 전체적인 분위기를 차분하면서도 몽환적인 느낌으로 이끈다.

고원석 (공간화랑 큐레이터)

Momory
Single channel video
11min 50sec
2001~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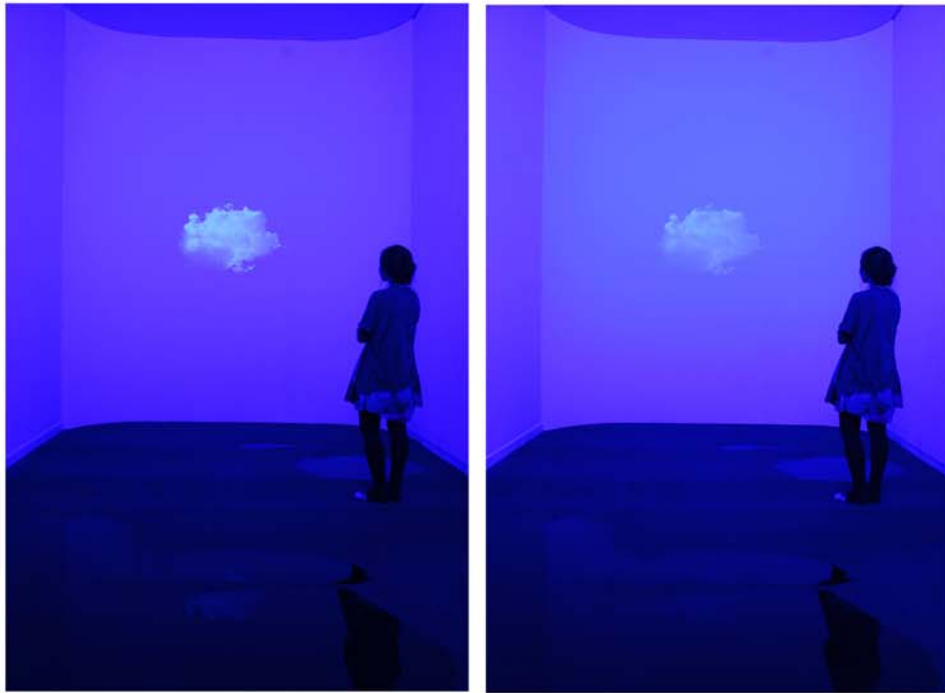
비오는 날 우연히 차창 밖으로 본 엘리베이터가 계속해서 움직이는 모습은 음악에 맞춰서 '삶의 춤'을 보는 느낌이었다. 바쁘게 움직이는 현대인만큼 계속해서 아래 위로 엘리베이터를 초점을 흐리게해서 찍은 뒤 그에 맞는 Sound를 넣은 영상물은 익숙한 일상을 비현실적이고 몽롱한 세계로 바라보게 만든다.

Elevator
Single Channel, 3' 23"
2007
Sound by Oh Yoonsuk





섬
비디오 설치, 가변크기
2009



원경(遠景)의 꿈

늘 너무 높은 곳에 있기에, 지상에서는 언제나 그 아래쪽만 보인다. 그래서 구름은 늘 평면이다. 그러나 김승영의 작품에서 보이는 구름은 비슷한 고도에서 바라보았을 것 같은 모습이다.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와도 같이, 수직의 구조를 포함한 부정형의 덩어리이다. 구름의 아래에 물웅덩이가 있다. 그 웅덩이 위에 선명하게 영상이 반사된다. 구름은 거친 바람소리를 내면서 꿈틀댄다. 잠시 긴장감을 고조시키다 슬며시 사라져버린다. 물웅덩이 위의 구름들도 동시에 사라진다.

일상의 시각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각도에서 촬영된 구름의 모습은 시점의 전환만으로 창출한 가상의 공간이다. 구름이 꿈틀대다가 사라지는 짧은 시간은 사실 훨씬 더 긴 시간의 응축이다. 시공간이 변형된 이 생경한 풍경은 물웅덩이에 반영된 이미지와 결합되면서 비로소 물질성을 획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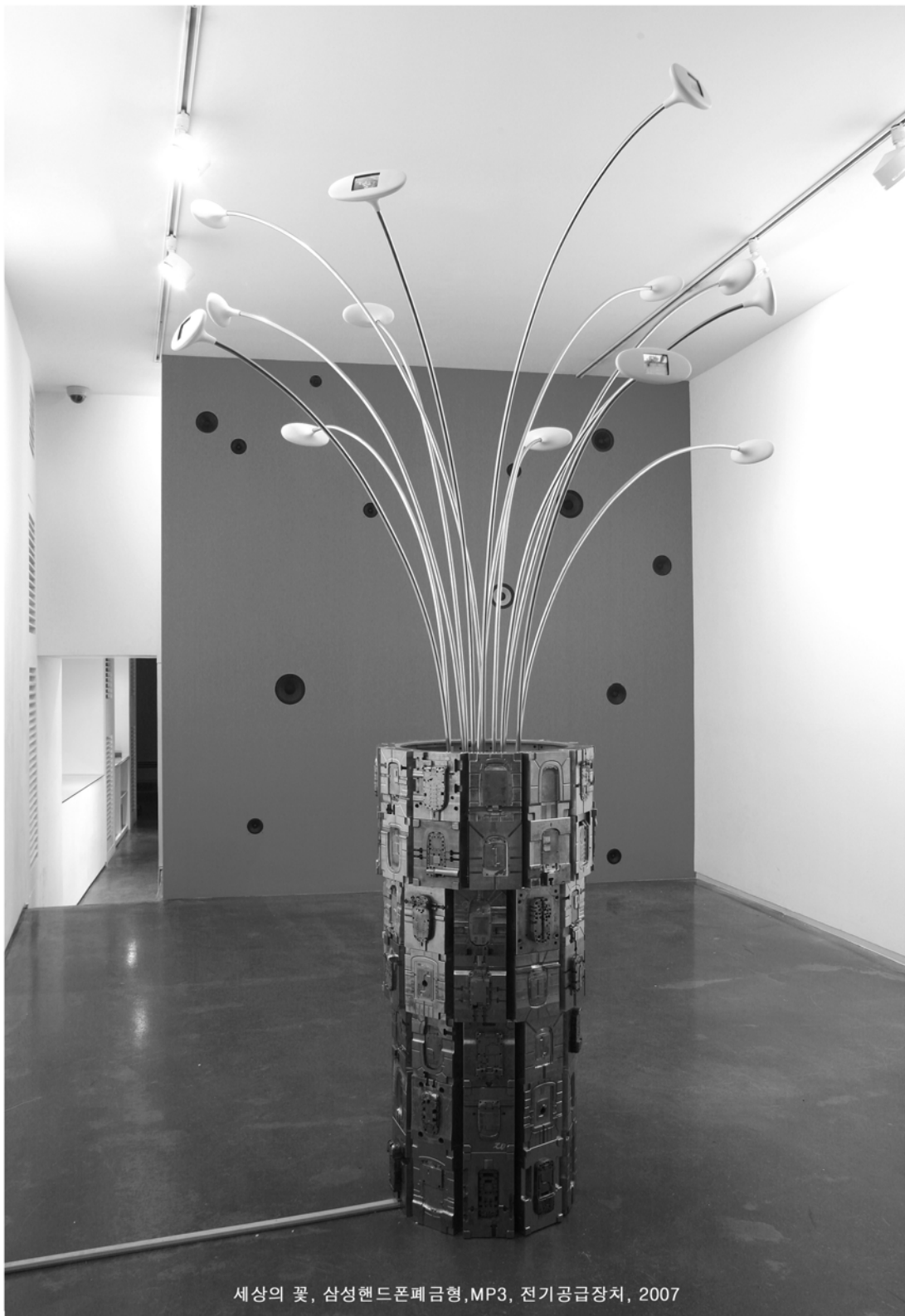
김승영이 벌여놓은 이 ‘재현의 재현’은 작품이 놓여진 공간에 강력한 가상성을 부여함으로써 현실보다 설득력 있는 비현실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풍경의 제목은 재미있게도 ‘섬’ 이란다. 착륙할 수 없는 섬. 닿을 수 없는 먼 곳. 만질수도 없고, 그저 멀리서 동경할 수밖에 없는 환영. 분명 있는 곳이지만 없는 곳이기도 한 원경. 작품 ‘섬’은 몇 개의 간결한 문장들로 이루어진 시(詩)와 같다. 명료하면서도 감상적인 몇 개의 은유가 마치 하나처럼 정교하게 중첩되어 있다. 실재와 재현, 재현과 가상, 가상과 상상력이 혼합되어 강력한 자기장을 뿜어내며 소우주를 구성한다. 원경의 꿈. 그 앞에서 우리는 지상과 천상의 구분 없는 공중으로 빨려 들어가버리는 것이다.

고원석 (공간화랑 큐레이터)



Island
video installation, variable size
2009





세상의 꽃, 삼성핸드폰폐금형,MP3, 전기공급장치, 2007





벽

스피커, 오디오인터페이스, 컴퓨터, 앰프4개
가변크기

2009

Soung by Oh Yoon Seok

일상의 소리와 강한 리듬의 음악소리





벽

고벽돌, 스피커, 오디오인터페이스, 컴퓨터, 앰프4개
가변크기

2009

Sound by Oh Yoon Seok

벽을 타고 날아다니는 새의 날개짓 소리와 빗소리